

## ‘예성의 미래 이끌 젊은 목자’ 선발, 제55회 목사고시 시행

예성의 미래 목회자를 선발하는 제 55회 목사고시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마포구 소재 신수동교회에서 시행했다.

목사고시위원회(위원장 신현과 목사·이하 고시위)에서는 총 61명 중 여성은 20명이 응시했으며 해외의 응시자는 없다고 밝혔다.

고시에 앞서 드러진 예배는 임흥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임시영 목사의 기도 후 총회장 김만수 목사가 ‘양 무리에 분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총회장은 “활동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부르심에 대한 확신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역자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야한다”고 설교했다.

교단총부 권순달 목사도 격려사를 통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건 능력이 나 실력이 아니다. 성결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제상에 맞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 총 61명 응시, 여성은 20명... 이들에 걸쳐 11과목 별 시험



고시위원장 신현과 목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알곡신자를 만드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인원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 고시는 첫날 △구약신학(임시영 목사) △교회개혁

과 성장(오성택 목사) △선교와 전도(오신종 목사) △예배학(박정택 목사) △신약신학(오성택 목사) △현장신학(임시영 목사) △교회개혁

는 △조직신학(조원우 목사) △설교학(윤호웅 목사) △사중복음(박병지 목사) △복사학(이수환 목사) △교회사임흥근 목사)가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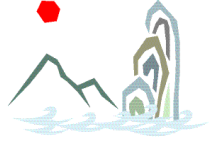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한 과목은 헌장으로 총 31명이 응시했으며, 다음으로 신약신학과 교회개혁과정장이 30명 응시했다. 그 뒤를 이어 예배학, 선교와 전도가 각각 29명이 응시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한 지방회는 안양지방회로 7명이 응시했으며, 다음으로 서울지방회, 서울중부지방회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목사고시 과목은 모두 11과목이며 각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목사고시를 주관한 고시위 관계자는 고시 난이도에 대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면서 “예제만 잘 숙지하고 이해했다면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사정회를 거친 후, 11월경 총회 총회와 성결신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평양골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 8월 19일 미국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는 2024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날 연단의 첫 번째 연사는, 노령으로(1942년생) 연인 출마 포기를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였다. 팻 애슬리의 소개로 연단에 오를 때, 거기에 참석한 23,500여 명의 민주당 당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We love Joe’(우리는 조 바이든을 사랑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4분여 동안 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4분 동안 연설을 시작하지 못하고 감격에 겨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한다. 사랑한다.’라고 모인 당원들에게 화답했다.

그의 인기는 내년 1월 퇴임이지만, 이날은 사실상 52년 정치 인생과 작별하는 날이었다. “미국이여, 나는 그대에게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 역사와 미래가 당신들 손에 달렸다.” 50여 분간 이루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감동 어린 연설이 끝났을 때, 전당대회장에 모인 당원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딤후 4:7-8)라며 감사와 승리 그리고 천국의 상급에 대한 확신 가득한 늙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연상되는 바이든의 고별 연설이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장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바나드 쇼는 그의 나이 94살에 죽을 때 내 모지 비석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리도였다.”라고 적어달라 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우물쭈물 보내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탄식일 수밖에 없다.

이제 9월이다. “사과는 사과나무 위에서 익고 / 대추는 대추나무 위에서 익고 / 너는 / 내 가슴에 들어와 익는다...”(나태주, 9월) 한편 9월이다. 10월 열매들은 9월에 결집된다. 9월의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 들을 우물쭈물 보낸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여, 나는 그대에게 최선을 다했노라.”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남긴 고별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내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최선(총성)을 대해야 할까? 또 어떤 열매를 남겨야 할까? 이제부터라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열매를 익혀 가자. 계절도 익어가는 계절 9월이다...

清水 ehc3s@hanmail.net

##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 장로회전국연합회 제52회 전국대회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김중현 장로) 제52회 전국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천안시 소재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됐다.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대회는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신앙과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개회예배는 준비위원장 황재돈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장 김중현 장로의 개회선언, 직전회장 박정식 장로의 기도, 서기 차천용 장로의 성경봉독, 예성장로회합창단의 특별찬양, 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설교

와 축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총회장은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치는 수련회가 되고 신앙의 밝은 자아상을 품고 예성의 중심으로, 세계에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넘쳐 나갈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서 강규열 서종모 노재익 장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로회를 위해, 총회를 위해 기도했다.

환영 및 축하의 시간에는 소프라노 이예규 집사의 특별찬양 후, 부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격려사, 성결대총장 김상식 목사의 영상 메시지가 있었다.



축사의 시간에는 부총회장 이천 장로,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회장 노성배 장로, 기성전국장로회 회장 김병호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정현숙 권사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세미나와 특강도 진행되었다. 첫날 오후 순서는 ‘물똥이를 버려두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순회전도대학의 설립자 박복남 장로가 나서서 전도특강을 진행했다. 붕어빵 전도회전으로 유

명세를 타고 있는 박 장로는 “노상(路上)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부속인과는 10회, 20회, 30회를 넘게 만나면서 친구가 됐고 마침내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 부속인은 지금 보살집 간판을 내렸고 행복한 여성을 보내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박 장로는 “단 한 명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을 더하면 복

음은 저절로 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서교회 서영탁 장로(서영탁 내과 대표원장)의 건강특강과 삼성교회 김영택 목사의 사중복음 특강, 열린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진 순서가 김영국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의 시작은 디드립교회 박근주 원로장로가 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통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마지막날 폐회예배는 참좋은교회 박용철 목사가 ‘성령충만과 교회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참좋은교회 다솔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의 시간도 이어졌다.

대회장 김중현 장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섬김과 겸손으로 부장하고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 서울남지방회 장로회 및 남전도회 연합세미나 및 영성수련회

**일시** 2024. 10. 12(토) 09:30 ~ 13:30

**장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본당

**대상** 서울남지방회 소속 장로 및 남전도회원, 전국 장로회 실행위원

**목표** 세미나 및 영성수련회를 통한 영성 개발 및 가정상담 치유

**중점**

- 서울남지방회 장로회와 남전도회 연합을 통한 남지방회 개교회의 연합
- 영성수련회 및 연합세미나를 통한 서울남지방회 개교회의 건전한 교회 지향
- 전국 장로회와 연합 영성수련회 및 연합세미나를 통한 장로회의 활성화

**강사**



신용백 목사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이병준 목사  
심리 상담학 박사, 다문화가족교육원장



강산 목사  
십자가교회

Cellist



박건우

Soprano



이진주

**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
제1부	09:30~10:30	예배(영성수련회) / 신용백 목사
제2부	10:40~12:40	연합세미나 1)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 이병준 목사/심리 상담학 박사, 다문화가족교육원장 2)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가: 강산 목사/십자가교회 ※ 특별연주 / 찬양: Cellist 박건우 / Soprano 이진주
제3부	12:40~13:30	식사(비전홀) / 친교(카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서울남지방회 장로회 / 남전도회연합회 후원: 예성 장로회 전국연합회